



시대와. 텍스트를. 넘어, 지향점을. 찾는다

《임원경제지》를 번역하는 사람들

산림(山林)과 경제(經濟)는 길을 달리한다. 산림은 벼슬하지 않고 초야에서 자신의 한 몸만을 잘 지니려는 자가 즐겨하는 것이고, 경제는 당대에 특의하여 벼슬하는 자가 행하는 것이다. 산림과 경제가 이같이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경(經)이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제(濟)란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조정에는 조정의 사업이 있으니 이것이 곧 조정의 경제고, 산림에는 산림의 사업이 있으니 이것이 곧 산림의 경제다. 그러니 처지는 비록 다르지만, 경제인 점에서는 같은 것이다. 1718년 홍만종이 쓴 《산림경제》(홍만선 저) 서문

글 김문태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 사진 박정훈

'생활의 지침' 담긴 '조선의 브리태니커'

오늘날 삶의 질을 고민하는 이들과 삶의 방안을 모색하는 이들이 귀농을 꿈꾼다. 그러나 막상 귀농의 현실에 맞닥뜨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만다. 그 동안 백화점에서 시장에서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던 도깨비 방망이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요술 방망이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며 무소유의 현실 앞에서 당황해 한다.

이제 먹을 거리, 입을 거리를 어찌 마련할 것이며, 거처할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또한 곡식과 채소와 가축을 어떻게 키울 것이며, 혹여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해 난감해한다. 더욱이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컴퓨터도 없는 자연 속에서 먹고사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남은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청산별곡>의 한 구절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렇공 더령공 하야 나즈란 다내와손더 이력저력하여 낮이야 지내왔으나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또 엇디 호리라 을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오

하루 아침에 무인도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가 따로 없다. 이처럼 자연을 마주한 이가 품게 되는 막막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조 사대부는 '출이경국제민 퇴이지수(出而經國濟民 退而自守)'라는 이념적 양면성이 있었기에 진퇴가 자유로웠다. 벼슬 길에 나아가서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며, 물러나서는 자신을 지키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출사(出仕) 길에서 운용해야 할 국가경제가 있었고, 퇴사(退仕) 길에서 구사해야 할 산림경제가 따로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관료 노릇을 하던 선비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자연의 경제를 도모하는 것은 오늘날의 귀농인이나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나마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진 선비라면 사정이 낫다. 땅 한 뼘기 없이 벼슬을 꿈꾸며 한양을 중심으로 한 근기 지역을 배회하거나 기거하는 선비는 그야말로 청맹과니 그 자체다. 200여 년 전, 이러한 딱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생활의 지침을 제시한 선비가 있었다.

풍석 서유구(徐有渠, 1764-1845년).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을 보고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수입하여 그 재배법을 널리 알린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다. 다산 정약용과 동시대인으로 오랜 기간 자연에 기거하며 저술 활동을 한 실학자라는 점에서 둘은 닮은꼴이었다. 다산에게 《여유당

질병 치료 및 예방법을 담고 있는 <인제지> 번역팀의 교열작업. 각 팀 별로 이뤄지는 번역작업은 규정각본, 고려대본, 오사카본 등 3개 필사본을 비교분석하며 원문을 확정하고, 구두점을 찍고, 1차 번역을 마친 뒤 교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서》가 있다면, 풍석에게는 《임원십육지》(이하 임원경제지)가 있다. 오늘날 《임원경제지》 혹은 《임원경제십육지》라는 제목으로 부르는 이 책은, 이미 100여 년 전에 쓰인 홍만선의 《산림경제》가 너무 소략하여 임원(林園)에서의 경제, 즉 자연에서의 경제를 새로 썼던 것이다. 무관(無官)의 선비들이 자연에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지식의 교류로서만 가능한 직업, 그 새로운 가능성

대한이가 소한이네 집에 놀러갔다 얼어 죽었다던가. 모질지 못한 대한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임원경제지》를 번역하는 이들을 찾았다. 정명현(39세,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수료), 박종우(38세, 고려대 국문학과 박사), 김태완(34세,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박사수료), 정정기(37세, 서울대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수료), 민철기(37세, 연세대 철학과 석사, 홈페이지 운영자) 등 제각기 다른 전공분야의 소장학자들과 마주했다. 면면이 모질지 못하게 사는, 욕심 없는 학자의 모습이었다.

우선 《임원경제지》에 대해 묻자, 이 작업을 발의하고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명현 씨가 입을 열었다. “그 당시 벼슬길에 나아가서 할 일을 알려주는 책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물러나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책은 없었던 겁니다. 《임원경제지》는 근기 지방에 머무는 도회지 선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총 1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농사 전반에 관한 <본리지>(권1-13), 식용식물과 약용식물에 관한 <관휴지>(권14-17), 화훼류의 재배에 관한 <예원지>(권18-22), 초목과 과실에 관한 <만학지>(권23-27), 뽕나무를 비롯한 의복에 관한 <전공지>(권28-32), 점성적인 천문관측에 관한 <위선지>(권33-36), 가축과 야생동물 및 어류에 관한 <전어지>(권37-40), 식품에 관한 <정조지>(권41-47), 가옥을 비롯한 가정 생활 일반에 관한 <섭용지>(권48-51), 식이요법과 육아법에 관한 <보양지>(권52-59), 의약과 구황식품에 관한 <인제지>(권60-87), 연중행사와 의례에 관한 <향례지>(권88-90), 독서법과 음악에 관한 <유예지>(권91-98), 선비들의 취미생활에 관한 <이운지>(권99-106), 거주지의 선택법을 비롯한 지리에 관한 <상택지>(권107-108), 화폐와 매매에 관한 <예규지>(권109-113)가 그것이다.

이어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정명현 씨는 “박사과정에 들어와 우연히 이 책을 접했습니다. 《자산어보》로 석사논문을 쓴 저는 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를 번역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독지가가 돈을 대고, 뜻을 함께할 사람들이 모여 본격적인 번역을 하게 됐죠. 이제 4년 됐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번역 사업에 참여한 이는 전문번역자 40여 명과 교열자 10여 명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외부 교열자 10여 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번역자가 교열작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인데, 3-5명으로 이루어진 팀 단위로 작업한다고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작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한의학·경제학·철학·국문학·한문학은 물론, 생물학·식품영양학·건축학·미술·서예·국악 등까지 다양하며, 특히 한문 원전을 한글로 옮기는 이들은 태동고전연구소·민족문화추진회·도음서원·유도회 등에서 한문 실력을 쌓았다고 한다. 작업은 우선 각자 초벌 번역을 한 뒤, 이들이 공유하는 홈페이지(www.keytext.org)에 올려 팀원이 서로 돌아가며 교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협동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철학을 전공한 민철기 씨로, 그 역시 번역에 참여해 기상예측과 관련한 <위선지>를 맡고 있다.

이들은 5월까지 완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번역본의 총수는 500쪽 분량의 35권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초벌 번역이 끝난 요즘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 올 3-5월이면 우선 3권 정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가장 먼저 나올 책은 벼·보리·기장·귀리 같은 곡물농사를 다룬 <본리지(本利志)>로, 《임원경제지》의 16지 중 근본이 곡물에 있다는 의식에서 붙여진 제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명현 씨는 “열정과 시대의식으로 오늘날 잊고 있는 것을 되새기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구 선생이 곡물을 제일 처음에 놓고, 재화를 맨 나중에 배치한 것처럼 자신들 역시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말로 들렸다.

실학자의 실용성, 번역자의 실용성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추진회조차 이 책의 번역을 망설였던 까닭은 어디 있을까. 방대한 분량은 차치하더라도 한문 해독능력 이외에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까다로운 작업이라 그랬으리라 짐작해본다. 자리에 함께한 이들 모두 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와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우선 들었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현재의 연구 풍토 속에서 지속적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인력과 경비와 시간이 대거 투입돼야 하는, 그야말로 현재적 실용성이 없는 작업인 셈이다.

《임원경제지》의 저자인 서유구 선생이 실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이 책을 편찬했음을 상기하면서 이 책 번역의 실용성에 대해 물었다. 정명현 씨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선 웰빙 시

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자연과 더불어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사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책은 국제화 시대에도 걸맞은 책입니다. 중국 자료를 대거 인용하면서 선진 문물을 취합한 책이거든요. 오늘날 문화콘텐츠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책이야말로 우리 고유 문화를 담고 있는 보고인 셈입니다.”

고전의 현재적 가치는 당대에 얼마나 발전적이었는가와 더불어, 오늘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책 번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용성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그제야 이들은 한때 이 책에서 묘사한 16가지 분야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구상해 본 적도 있다며 웃었다. 민속촌처럼 실제로 책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마을을 꿈꿨다는 것이다. 200여 년 전에 제시한 삶의 방식을 현대에 접목하여 그 유용성을 시험해보려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책 번역이 우선이라 그런 현실적인 계획은 일단 접었다고 했다.

서유구 선생은 벼슬에서 물러났거나 벼슬을 하지 못한 선비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렇다면 아직 대부분 자리를 잡지 못한 소장학자들이 이 책을 번역하면서 느끼는 심정은 어떠한지 궁금했다.

구황식품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김태완 씨가 입을 열었다. “이 작업을 통해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또한 좋은 분들을 만나는 기쁨이 무엇보다 크기도 하고요.” 가족학을 전공한 정정기 씨는 “제 전공의 특성상 이 분야에 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 서유구 선생 같은 분이 요리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꼼꼼하게 적어놓은 걸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게 해준 책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번역이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실용서적을 번역하는 것이 실용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남는 씁쓸함 역시 모두 공감하는 것이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소장학자들에게 실용적 가치는 이미 고려의 대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도 처자식을 거느린 엄연한 생활인 아닌가.

묵묵히 듣고 있던 박종우 씨가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일을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도움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점차 전공이 다른 이들과의 작업을 통해 학제적 공감대를 느끼게 됐습니다. 나중엔 이 작업을 필연으로 인식했고, 지금은 이 작업에 대해 고전학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번역가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번역작업에 매진하겠습니까?” 곧 바

로 정명현 씨가 말을 이었다. “이제는 번역만으로도 학위를 줘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느라 학위 받는 일도 늦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만 해도 박사과정 수료가 몇 학기 늦춰졌으니까요. 그러나 이 일은 저희들이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희소성이 있기도 하고요. 이럴 때 투자해야 가치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순간 “예전에는 선비가 농부였고, 농부가 선비여서 밭 갈며 도를 즐기니 쟁기와 보습이 곧 시(詩)와 서(書)였다(《의상경제책》 하)”는 서유구 선생의 글귀가 뇌리를 스쳤다. 논문이나 저서는 온전한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번역물은 그렇지 못한 현실, 4년이라는 긴 세월을 투자했으나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한 현실에 대한 번역자들의 울분이 느껴졌다. 학문이 생활이고, 생활이 학문인 것을.

이런 학계와 사회의 열악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작업은 레드오션이 아니라 이미 블루오션이었다. 한문 공부 안 하고, 고전을 읽지 않는 세대 속에서 고전번역은 미래지향적 부가가치를 지닌 것이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눈동자에서 닭이 봉황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것은 환상인가 바람인가. 썰렁하던 세미나실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책무

그렇다면 실용성의 시대이자 가치적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대에 이들의 작업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일차적으로는 이 서적이 번역됨으로써 학문의 확대재생산이라는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문 원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각 방면의 학자들이 이 번역 성과를 통해 학문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번역자들은 이 번역을 통해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재조명하기보다는 성근 한국사의 빈칸을 메우는 데 치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이 책을 번역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박종우 씨는 “고전은 현대의 전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유구 선생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지식인의 정신을 엿보았다고나 할까요? 전 이 작업을 통해 오늘날 지식인은 무얼 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고전은 현대의 정신적 지주이며, 고전을 통해 선인들의 정신을 본받는다라는 명제를 재확인한 셈이었다. 실상 《임원경제지》의 실용성과 현재적 가치는 저자인 서유구 선생의 정신을 천착하는 데서 담보되는 것이다. 잠시 《임원경제지》 번역의 가치 이전에 오늘을 살아



가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에 대해 반추하는 시간이 흘렀다.

연전에 인문학 위기가 화두로 등장한 적이 있었다. 신문이나 방송은 물론이거니와 인문학 관련 학자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인문학 주간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문학의 위기는 인문학자들이 자초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못내 떨칠 수 없었다. 인문학 위기의 중심에 대중들의 외면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지나친 것일까. 원전자료와 학문연구결과를 전문적 지식을 지닌 이들만 공유하는 데서 비롯된, ‘자초한 소외’ 말이다.

논문과 학술지서만을 연구결과로 인정하고, 이를 쉽게 풀어 대중적 눈높이에 맞춘 글은 잡문이 되는 현실, 또한 고전자료를 천착한 것은 연구실적이 되고, 이를 번역하거나 해설한 글은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격하하는 현실과 인문학 위기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상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고전 번역을 통해 선인의 정신을 엿본 이들이 오늘날 학자로서의 사회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암묵적으로 설파하고 있었다. 선비들이 오곡을 분별하지 못하고, 눈먼 이가 단청을 대하듯, 귀먹은 이가 음악을 듣듯 하는 당대 현실을 좌시할 수

없었던 서유구 선생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이 방대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정명현 씨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 번역사업이 이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세 축은 육역 원을 쾌척하신 송오현 영어전문학원 원장님과 출판을 약속해주신 김경희 지식산업사 사장님, 그리고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저를 포함한 번역연구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 축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저력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 《임원경제지》 번역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를 재지 않고 다만 우리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했습니다. 젊음이 있기에 모험을 즐기고, 끊임없이 도전하려 합니다. 저희는 여러 방면의 전공자들이 펼치는 지식의 교류로서만 가능한 번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이 번역서가 고전 번역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역작업이 끝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묻자, 정명현 씨가 매듭을 지었다. “정한 일은 없지만 앞으로 이 팀이 지속적으로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팀인데...” 기나긴 여운만큼이나 이 번역작업은 개인이 이끌고 나가기에 너무도 방대한 사업이었다. 오죽하면 인력과 시간과 경비가 확보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도 이 책 번역을 망설였겠는가. 그러나 이 작업에 대한 열정과 미련이 그 누구보다 클 수밖에.

긴 아쉬움 속에서 이들이 그간 쌓은 음공(陰功)이 빛을 볼 것이라는 희망을 봤다. 세상을 위해 큰일을 도모하는데, 세상이 가만히 있겠는가. 미구에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각 방면의 여러 학자들은 이 번역서를 기초자료로 삼아 연구에 매진할 것이고, 일반 대중들은 이를 현실에 응용하려고 할 것이다. 세상에 큰 도움을 주었으니 실익이 없는 찬사에 그친다 할지라도 진정 서유구 선생의 뜻을 이미 실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언젠가 이들의 작업이 학문적 결실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아울러 이들의 인생장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큰 매듭으로 남길 바라며 이들에게 갈채를 보낸다. 그들의 구호만큼이나 정직하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텍스트, 그에 수반하는 성실하고 정직한 번역을 위하여,’

글쓴이 | 김문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광운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책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문학연구와 국어교과교육》·《퇴세거보는 우리 건국신화》·《세상을 비춘 위대한 책벌레들》 등의 저서와 《김화 구비문학 대관》·《북한의 구비문학 장르인식과 관점 연구》 등의 편저와 논문 등이 있다.